



리베르소의 아르데코 정신을 재해석한 감각적인 디자인

리베르소 원 '프레스스 플라워' 시리즈에 새롭게 선보이는 세 가지 타임피스

주요 특징:

- 리베르소: 파인 워치메이킹과 결합된 예술적 표현을 위한 캔버스
- 생동감 넘치는 트로피컬 아르데코에서 영감을 받은 세 가지 새로운 디자인
- 예거 르쿨트르의 탁월한 장식 공예와 주얼리 전문 기술을 기념하는 걸작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직사각형 회전 케이스를 갖춘 리베르소는 양면 중 원하는 페이스를 앞으로 돌려 착용할 수 있는 워치메이킹 분야의 상징과도 같은 시계입니다. 모노페이스 모델의 깔끔한 핑크 골드 750/1000(18 캐럿) 케이스백은 예거 르쿨트르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의 장인들이 탁월한 수준의 장식 공예와 주얼리 테크닉을 선보이며 예술적인 표현을 위한 캔버스가 되어줍니다.

2021년에는 파인 워치메이킹과 예술적 공예, 하이 주얼리의 코드를 결합한 반짝이는 리베르소 원 '프레스스 플라워' 시리즈를 선보였습니다. 2024년, 그랑 메종은 컬렉션에 산뜻한 컬러와 정교하면서도 화려한 매력을 더해줄 핑크 골드 소재의 세 가지 새로운 모델로 컬렉션을 풍성하게 채웁니다. 각 모델당 10피스 한정 제작되는 이 타임피스는 에나멜링, 금박 빠이용나쥬(paillonage), 켄세팅 기술과 같이 예술의 경지에 오른 공예 기술을 결합하여 선보입니다.

선명한 컬러를 통해 표현된 아르데코 스타일

세 가지 새로운 시계는 아르데코 시대가 정점에 이르렀던 1931년에 탄생한 리베르소의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아, 호화로웠던 트로피컬 아르데코의 정신을 기념합니다. 1930년대에 많은 인기를 얻은 이 디자인의 리베르소는 무성한 초목과 선명한 색채의 꽃을 배경으로 한 스트림라인 모던(Streamline



Moderne) 스타일의 유려한 라인이 특징입니다. 싱가포르에서부터 쿠바와 뭄바이 그리고 가장 잘 알려진 마이애미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지의 여러 도시에 스트림라인 모던 스타일의 원형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진귀하고 아름다운 오브제를 꽃 피우는 정교한 예술과 공예의 만남

리베르소 원 다이얼 디자인의 절제된 품격은 케이스를 가득 채운 다채로운 장식을 돋보이게 해줍니다. 화이트 마더오브펄을 배경으로 골드 브래킷이 다이얼의 네 모서리를 장식하며 시그니처 리베르소 원 앞면에 세팅된 숫자를 감싸는 프레임이 되어줍니다. 그레인 세팅 다이아몬드가 가드룬과 러그를 장식하며, 와인딩 크라운은 리버스 세팅 다이아몬드로 빛을 발합니다.

새로운 디자인은 숙련된 장인들이 수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세심하게 조율한 프로세스를 거치며 협업한 결과물을 통해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의 예술성과 다양한 기술을 입증해줍니다. 플로럴 디자인은 장인의 작업에 고도의 복잡성을 더하는 곡선과 각도를 선보이며 뒷면에서 베젤까지, 케이스 측면을 매끄럽게 감싸줍니다.

문자 그대로 '돌출된 윤곽'의 뜻을 지닌 샹르베는 가장 오래된 장식 에나멜링 기법 중 하나입니다. 먼저 케이스의 평평한 메탈 표면의 일부를 파내 케이스에 장식할 모티프의 윤곽을 완성합니다. 그 다음으로 에나멜 장인이 에나멜을 사용하여 표면에 남아 있는 홈과 구조에 맞춰 전체적인 디자인의 디테일과 컬러를 채색합니다. 레이어를 한 번에 한 층씩 더하면서 투명하고 불투명한 에나멜 층을 적절히 조합하고 원하는 효과를 연출합니다. 실제로 에나멜 작업을 시작하기까지도, 에나멜 안료가 고온에서 반응하는 방식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50 시간이 넘는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야 합니다.

새로운 '프레스스 플라워' 디자인은 빠이용나쥬와 결합하여 에나멜링 공예 기법을 한층 더 끌어올립니다. 초소형 24 캐럿 금박을 패턴과 정확히 일치하는 모양 및 크기에 맞춰 자른 뒤 적절한 위치에 채워 넣습니다. 에나멜 장인은 아교 에나멜로 투명한 레이어를 제작한 후 완성된 조각을 제자리에 고정하고 의도한 지점에 배치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작업을 마쳐야만 컬러 에나멜로 작업하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는 10 회 이상 가열해야 하며, 가열할 때마다 컬러의 강도와 깊이가 더해집니다. 그랑 퓨 에나멜링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오랜 경험과 탁월한 실력을 필요로 합니다. 최대 800°C에서 가열 공정을 거치면 일부 안료의 컬러가 변하며, 오랜 경력을 지닌 에나멜 장인들만 가열 후 최종 컬러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가열 횟수가 많아질수록 결과물은 더욱 아름다워지지만, 기포나 균열이 생기고 타버리거나 줄어들고 메탈 베이스가 휘어지는 등 감수해야 할 위험도 증가합니다.

배경에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디자인은 에나멜 작업을 마쳐야만 켄세팅을 시작할 수 있어 작업 과정이 더욱 정교하고 복잡합니다. 에나멜과 켄세팅을 조율하는 과정은 여러 장인들이 서로 맞춰 나가는 정교한 춤과도 같습니다. 가열 공정은 골드 소재의 강도를 높이지만 켄세팅 장인에게는 연질 메탈이 적합하므로 이상적인 강도를 찾기란 매우 까다롭습니다.

에나멜링이나 켄세팅은 사소한 실수만으로도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작품을 망칠 수 있습니다. 서두르거나 빠르게 마칠 수 없는 제작 과정의 특성상, 많은 이들이 장식 공예에 관심을 가지고 탁월한 수준의 전문 기술과 작품에 높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열대 지역에서 핀 꽃의 아름다움에 찬사를 바치는 세 가지 새로운 모델

버드 오브 파라다이스 – 꽃의 언어로 자유와 행복을 형상화한 타임피스. 전통적인 그랑 퓨 샹르베를 변형한 기법으로 극락조화의 화려한 색채와 강렬한 기하학적 형태를 담아냅니다. 먼저 케이스백의 평평한 골드 표면에 디자인의 윤곽을 따라 홈을 파는 첫 번째 단계를 마친 후, 초소형 24 캐럿 금박을 꽃의 각 부분과 정확히 일치하는 모양 및 크기로 자르고 주의를 기울여 적절한 위치에 채워 넣습니다. 이렇게 완성한 금박 베이스는 오렌지와 골드 톤에 풍부한 질감과 광채를 더해줍니다. 그다음으로 에나멜 장인이 컬러가 다른 19 가지 에나멜 안료를 바르는 섬세한 과정을 거쳐 전체적인 색감을 표현하고 입체적인 형태를 완성합니다.

에나멜을 9 겹 채색하기 위해서는 60 시간이 소요됩니다. 질고 풍부한 색채를 띤 꽃과 잎사귀는 꽃의 배경이 되어주는 스노우 세팅 다이아몬드의 눈부신 광채와 만나 더욱 아름답게 반짝입니다. 스노우



세팅은 크기가 다른 9 가지 스톤을 사용하는 까다로운 기법입니다. 세팅 장인은 "다른 도구 없이 수작업"으로만, 단 1mm 의 메탈 표면도 남기지 않고 선별한 스톤을 배치하여 유려하게 빛나는 눈부신 광채를 표현합니다. 버드 오브 파라다이스 타임피스에는 약 331 개(총 1.64 캐럿)의 다이아몬드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총 작업 시간은 65 시간에 달하며 초록색 잎사귀와 같은 컬러로 맞춤 염색한 유광 그린 악어 가죽 스트랩이 매치되어 있습니다. 리베르소 원 '프레쉬스 플라워' 버드 오브 파라다이스는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에서 총 125 시간의 작업을 거쳐 완성됩니다.

히비스커스 에나멜 - 아름다움과 지혜를 상징하는 열대 꽃을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라군을 연상시키는 컬러로 재해석합니다. 메티에 라르™ 리베르소 원 최초로 전체 배경을 그랑 퓨 에나멜 처리하고 오목한 케이스 측면 주변을 감싸는 듯한 연출로 다이얼을 뚜렷하게 드러냅니다. 꽃과 잎사귀는 그랑 퓨 상르베 에나멜 장식으로 12 가지 컬러의 에나멜을 최대 9 겹으로 채색해야 하는 섬세한 공정을 거쳐 섬세하게 완성합니다. 세심한 빠이용나쥬 기법으로 탄생한 황금빛 수술은 에나멜 아래에 자리 잡은 24 캐럿의 초소형 금박으로 강조됩니다. 아름다운 색채의 블루와 그린 에나멜은 약 157 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가드룬 및 러그(총 1.25 캐럿)의 투명한 광채가 더해지며 더욱 찬란히 빛납니다. 50 시간의 에나멜링 작업과 22 시간의 켄세팅 공정까지, 장식 공예에만 총 72 시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유광 블루 악어 가죽 스트랩은 꽃과 균형을 이루는 컬러로 맞춤 염색되었습니다.

히비스커스 다이아몬드 - 에나멜링, 빠이용나쥬, 다이아몬드 세팅 공예를 결합하여 이국적인 히비스커스 꽃의 찬란한 자태를 재해석합니다. 푸른 꽃은 작업에만 30 시간이 소요되는 그랑 퓨 상르베 에나멜로 제작합니다. 처음 의도한 컬러와 섬세하고 미묘한 그라데이션을 연출하기까지 12 번의 컬러 연구도 진행했습니다. 꽃의 수술은 에나멜 아래에 자리 잡은 24 캐럿의 금박으로 강조되며, 버드 오브 파라다이스 워치와 마찬가지로 스노우 세팅 다이아몬드 배경이 짙고 풍부한 꽃 그리고 잎사귀와 강렬한 대비 효과를 선사합니다. 가드룬과 러그를 장식한 그레인 세팅 다이아몬드(총 2.02 캐럿, 약 523 개의 다이아몬드) 등 켄세팅 작업에만 120 시간이 소요됩니다. 리베르소 원 '프레쉬스 플라워' 히비스커스 다이아몬드는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에서 총 150 시간의 작업을 거쳐 완성됩니다.



숙련된 장인의 손길에서 탄생한 타임피스는 진귀한 보석과도 같이 아름답지만, 정교하게 얹힌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습니다. 리베르소 원 '프레스스 플라워' 타임피스는 예거 르쿨트르의 탁월한 워치메이킹 기술력을 증명하는 핸드 와인딩 칼리버 846 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각 모델당 10 피스만 제작되는 이번 타임피스의 미니어처 작업은 모두 미묘한 차이를 지닙니다. 지극히 섬세한 디테일과 컬러 팔레트는 각 장인이 지닌 특정한 제스처의 산물로, 그들의 열정과 개성, 그리고 뛰어난 기술력을 표현합니다.

상세 정보

리베르소 원 '프레스스 플라워' - 버드 오브 파라다이스

케이스: 핑크 골드 750/1000(18 캐럿)

시계 사이즈: 40 x 20mm, 두께: 9.09mm

칼리버: 매뉴얼 와인딩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46

파워 리저브: 38 시간

기능: 시간 및 분

다이얼: 마더오브펄

케이스백: 그랑 퓨 상르베 에나멜, 스노우 세팅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약 331 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1.64 캐럿) 세팅

스트랩: 유광 그린 악어 가죽

제품 번호: Q3292421

제작: 10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

리베르소 원 '프레스스 플라워' - 히비스커스 에나멜

케이스: 핑크 골드 750/1000(18 캐럿)

시계 사이즈: 40 x 20mm, 두께: 9.09mm

칼리버: 매뉴얼 와인딩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46



파워 리저브: 38 시간

기능: 시, 분

다이얼: 마더오브펄

케이스백: 그랑 퓨 상르베 에나멜

다이아몬드: 약 157 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1.25 캐럿) 세팅

스트랩: 유광 블루 악어 가죽

제품 번호: Q3292422

제작: 10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

리베르소 원 '프레셔스 플라워' – 히비스커스 다이아몬드

케이스: 핑크 골드 750/1000(18 캐럿)

시계 사이즈: 40 x 20mm, 두께: 9.09mm

칼리버: 매뉴얼 와인딩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46

파워 리저브: 38 시간

기능: 시, 분

다이얼: 마더오브펄

케이스백: 그랑 퓨 상르베 에나멜, 스노우 세팅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약 523 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2.02 캐럿) 세팅

스트랩: 유광 블루 악어 가죽

제품 번호: Q3292423

제작: 10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1833 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드주의 평화로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워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는 1,40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왔으며 430 여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랑 메종의 워치메이커는 190 년 동안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80 여 개의 기술력이 한 지붕 아래 모인 매뉴팩처에서 기술적 독창성과 미적 아름다움, 절제된 세련미가 결합된 파인 워치메이킹 작품을 탄생시킵니다.

jaeger-lecoultre.com